논술 '판박이 답안' 점수 못딴다

주요대 채점기준 분석 서울대 창의력 40%·논증력 30%

서울대 등 서울시내 주요 대학의 논술 시험에서 창의력과 이해력이 가장 중요한 채점 기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9일 서울시내 주요대학에 따르면 서울대의 경우 2005학년도 이후 논술의 평가기준은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창의력(40점)의 비중이 가장 컸고 논증력(30점), 이해·분석력(20점), 표현력(10점) 순이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창의력 항목에서는 얼마나 독창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쓸 수 있는지를 가장 중점적으로 평가했으며, 논증력 항목에서는 적절한 논거를 설정하고 글을 구성하는 능력을 평가했다. 서울대는 2004년 4월 실시한 모의논술을 계기로 만든 이 기준을 2007학년도 입시까지 원칙적으로 계속 적용해왔다.

성균관대는 2007학년도 수시 1학기 인문계 논술에서 이해력 및 통계자료 해석능력(50%)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았고 논리성 및 문장력(30%), 독창성 및 비판 능력(20%)이 뒤를 이었다. 세부적으로는 제시문 내용이해(20%)와 논리 전개(20%) 등을 적용했으며 제시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표현이 적절하지 못할 경우 최대 5점까지 감점했다.

한양대는 종합적 구성력과 결론(30%)을 가장 중시했고 전체 구조 및 전개(20%), 유사한 특성의 구체적 비교(20%), 차이점의 구체적 대조(20%), 문제해결 적용능력(10%) 등을 평가했다.

서강대는 2007학년도 수시 2-1학기 전형에서 세부 문제별로 구체적인 평가 기준을 마련해 적용했다. 이 기준에서는 논지에 대한 이해력과 논리적·비판적 기술 능력, 창의적 종합력 등이 주된 평가요소였다.

한국외대는 2007학년도 수시 1학기에서 제시문의 정확한 이해와 논리적 전개를 할 수 있는지를 가장 중요한 평가 기준으로 삼았다. 외대는 제시문을 정확하게 이해해 논리적으로 논리를 제시할 경우 만점인 125점을 매겼다. 이해는 잘했지만 문제점과 대응방안 제시가 다소 미흡하면 80~100점을 매겼다.

한 대학 관계자는 "내용이 얼마나 독창적이고 충실한가가 중요하지 글을 매끄럽게 잘 쓰는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주요 대학교 논술 채점 기준

<서울대>

구분	평가내용 및 기준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인한 감점	답안길이 미충족 필기구 종류 및 색깔 위반 응시자의 신원노출
이해·분석력(20점)	논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분석 능력 제시문에 대한 정확한 이해·분석(독해)능력 논술문이 논제에 충실한 정도 제시문을 적절히 활용한 정도
논증력(30점)	**근거 설정 능력** -주장에 대한 적절하고 분명한 논거 제시 여부 -주장과 논거의 논리적 타당성 -논제에 대한 분명한 견해 표현 **구성 조직 능력** -전체 논의 전개에 있어 논리적 비약 여부 -글의 전체적인 흐름이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전개
창의력(40점)	**심층적인 논의 전개** -본인의 주장이나 논거에 대해 스스로 가능한 반론들의 고려 -논의가 전개되고 있는 맥락이나 배경 상황에 대한 적절한 고려 -묵시적인 가정이나 생략된 전제에 대한 더 나아간 고찰 **다각적인 논의 전개** -발상이나 관점 전환을 시도 -가능한 대안들에 대한 고려 -여러 개념들의 종합 -암묵적으로 가정된 전제에 대한 비판적 고찰 **독창적인 논의 전개** -주장이나 논거에 새로움 -문제를 통찰함에 있어 특이함 -관점이나 논의 지평에 참신함
표현력(10점)	**표현의 적절성** -문장표현의 매끄럽고 자연스러움, 적절한 비유 등 -단락구성 및 어휘 사용 -맞춤법, 원고지 사용법

<성균관대>

평가항목	배점	세부평가요소	비고
이해력 및 통계자료 해석 능력	50	제시문의 내용이해(20)	제시문에 대한 내용 이해가 잘 되어 있으면 20점을 배점함. 제시문에 대한 이해가 잘못될 경우 각각 5점까지 감점함.
		기술의 충실성 및 표현의 적절성(20)	제시문의 논점 및 시사하는 바를 충실히 설명하고 어휘선택 및 표현이 적절한 경우 20점을 배점함. 설명이 충실하지 못하고, 표현이 적절하지 못하면 각각 5점까지 감점함.
		통계자료 해석 능력(10)	통계자료의 의미를 충실히 해석할 경우 10점을 부여함.
논리성 및 문장력	30	논리전개의 명확성(20)	전체적, 종합적으로 평가함.
		표현, 어법, 맞춤법(10)	표현, 어법, 맞춤법에 대하여 각 3점까지 감점함.
독창성 및 비판능력	20	주장의 창의성(10)	주장이 창의적이면 10점을 배점함. 평균점수는 7점으로 함.
		비판능력과 통찰력(10)	비판능력과 통찰력이 있는 경우 10점을 배점함. 평균점수는 7점으로 함.

<한양대>

평가 영역	배점기준
전체 구조 및 전개	20%
유사한 특성 구체적 비교	20%
차이점 구체적 대조	20%
비교, 대조의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 해결에 적용	10%
종합적인 구성력 및 결론	30%

교대생 수업거부 돌입 정부의 중장기 교원수급계획 재검토 등을 요구하며 9일부터 무기한 수업거부에 들어간 광주교육대학생들이 수업을 거부한 채 단과별 분임토의를 위해 교실로 이동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남구 노인요양원' 협상 또 결렬

광주시 남구 봉선동에 건설 예정인 노인요양원을 둘러싼 '인애동산'(대표 김인제) 측과 주민들 간의 3차 협상이 또다시 결렬되면서 협상 자체가 무기한 연기됐다.

양측은 9일 오후 3시 '인애동산'에서 만나 노인요양원의 '인애동산' 내 재배치'와 '제3의 장소' 이전 등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주민들은 그러나 이날 '인애동산' 측의 요구사항인 ▲주민총회 회의록 ▲주민 동의에 의한 위임장 등 대표성을 입증할 서류를 제시하지 못해 협상 자체가 무산됐다. 양측은 이날 만난 지 1시간 만에 헤어졌으며, 이후 협상 일자도 정하지 못했다.

주민들은 "자치위원장의 직인, 혹은 자치위원회에서 새로 결성한 별도의 모임을 인정해달라"고 주장했으나, '인애동산' 측은 "주민 대부분의 동의"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애동산' 관계자는 "3차 협상에 참여한 주민들은 '재배치에 합의하자'는 '협상파' 주민들로, '제3의 장소'를 주장하는 '강경파'의 반발이 예상돼 어차피 대화 자체가 의미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편 '인애동산'이 광주지법에 제출한 '공사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2차 공판은 오는 22일 열릴 예정이다.

/서민정기자 viola@kwangju.co.kr

노조 조직률 10.3% '사상 최저'

조합원 수도 줄어

잇단 파업 등으로 노동단체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깊어지면서 노동조합 조직률이 지난해 사상 최저치로 떨어졌다.

9일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노동조합 조직률은 10.3%로 전년의 10.6%보다 0.3%포인트 하락했다. 지난해의 노조 조직률은 관련 통계가 발표되기 시작한 1977년의 25.4% 이래 최저치다.

노조 조직률은 70년대 후반과 80년대 초반까지는 20%를 웃돌았으나 83년(19.4%)부터 20% 이하로 떨어진 뒤 등락을 거듭하다 89년 19.8%를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노동조합 수와 조합원 수도 줄어들고 있다. 지난해 노동조합 수는 5천971개로 전년에 비해 46개(0.8%)가 줄었고, 조합원 수도 150만6천 명으로 전년에 비해 3만671명(2.0%) 감소했다.

한편 상급단체 미가맹노조는 1천177개, 조합원 수는 9만3천547명으로 전년에 비해 조합 수는 130개, 조합원 수는 5천24명이 증가했다.

/임주형기자 jhlim@kwangju.co.kr

인터넷쇼핑몰 6곳 광주공정위, 시정명령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표지를 부당 사용한 6개 업체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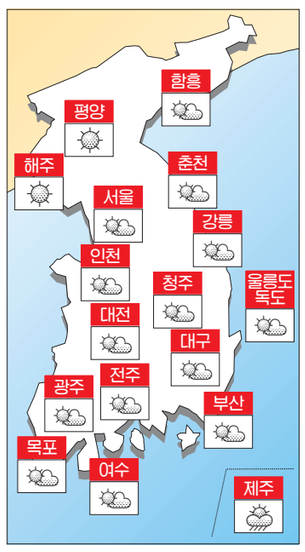
해당 업체는 S수산과 T·J여행사 등 6개 인터넷쇼핑몰로 이들은 공정위의 표준약관을 이용약관으로 사용한다는 의미로 공정위 마크를 자신들의 쇼핑몰에 고지해놓고 실제로는 공정위 표준약관과 다른 약관을 사용한 혐의다. /장필수기자 bungy@

하늘엔 '구름 공연'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맑은 뒤 밤부터 흐려지겠다.

11월 10일 (음 9월 20일) ◇전국날씨

광 주	차차 흐려짐	9~17℃
목 포	차차 흐려짐	10~16℃
여 수	차차 흐려짐	15~19℃
완 도	차차 흐려짐	11~18℃
구 례	차차 흐려짐	6~17℃
해 남	차차 흐려짐	6~19℃
장 흥	차차 흐려짐	6~19℃
고 흥	차차 흐려짐	8~18℃
순 천	차차 흐려짐	6~17℃
영 광	차차 흐려짐	8~16℃
진 도	차차 흐려짐	8~19℃
전 주	차차 흐려짐	8~16℃
남 원	차차 흐려짐	5~17℃
정 읍	차차 흐려짐	8~15℃



서해남부
앞바다=북동~남동풍 파고 1.0~1.5m
먼바다=북동~남동풍 파고 1.0~2.0m
남해서부
앞바다=북동~남동풍 파고 1.0~1.5m
먼바다=북동~남동풍 파고 1.0~2.0m

목 포 밀물 〈 04:44 17:46 썰물 〈 09:59 23:03
여 수 밀물 〈 12:18 --:-- 썰물 〈 05:29 18:28

▲해뜸 07:02 ▲해짐 17:30 ▲달뜸 21:35 ▲달짐 11:57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11(토)	12(일)	13(월)	14(화)	15(수)	16(목)
날 씨						
최저/최고	5/13	2/14	5/14	6/11	3/10	1/9

아시아 최초 수중문화유산 조사선

'씨뮤즈'호 목포 앞바다에 떴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학예(學藝)의 여신' '뮤즈'(Muse)가 목포 앞바다에 떴다.

목포 국립해양유물전시관은 9일 아시아 최초의 수중문화유산 조사선인 '씨뮤즈'〈사진〉호 취항식을 가졌다.

'씨뮤즈'호는 ▲최대 속력 35노트(시속 64.8㎞) ▲승선 인원 13명 ▲길이 19m ▲너비 4.4m의 19t급 FRP 선박(총 건조비 6억8천만원). 양식장과 그물 등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스크루가 없는 워터제트 추진 방식을 채택, 수심 70㎝의 낮은 곳에서도 항해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 배에 장착된 무인 잠수정(길이 1m, 1억원)은 수심 300m에서 로봇팔을 이용해 유물을 채취하고 촬영할 수 있다. 수중 GPS인 'USBL'(1억5천만원)은 바다에서 정확한 발굴 지점을 찾는다. '사이드 스캔 소나'는 음파를 쏴서 돌아오는 영상을 잡아 물체의 형태를 확인하는 최첨단 장비다.

이외 ▲바다밑에 묻혀 있는 물체를 확인할 수 있는 지층탐사기 ▲위성으로부터 좌표를 받아 위치를 찾는 'DGPS' ▲조류계 ▲탁도계 ▲상어 퇴치기 ▲잠수사끼리 통신이 가능한 수중통신장비 등을 갖추고 있다.

'씨뮤즈'는 오는 17일 한국 수중발굴의 시발점이 된 신안선 침몰 해역으로 처녀 항해를 시작하며, 21일 경기 안산 대부도 인근에서 첫 탐사·발굴 작업에 들어간다. /목포=이상선기자 sslee@

세계 최대 'A380機' 15일 한국에

세상에서 가장 큰 항공기인 에어버스 380기〈사진〉가 오는 15일 인천공항에 내려 한국에 첫선을 보인다.

서울지방항공청 관계자는 "에어버스사로부터 시범비행을 위해 인천공항에 착륙하겠다는 신청을 접수했다"며 "A380기가 착륙 후 비행장 유도로와 계류장 등을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A380기는 동체 전체가 복층 구조로 돼 있는 550석급 항공기. 미니바·헬스클럽·샤워실·면세점 등과 승무원용 컴퓨터 등 첨단 시설을 갖추고 있어 '하늘의 호텔'로 불린다.

대한항공은 오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이 항공기 5대를 인도받아 장거리 노선에 투입할 예정이다. A380기는 15일 싱가포르에서 인천에 왔다가 16일 홍콩으로 이동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